

현명한 후배들의 과감한 발상 전환을 기대하며

글 | 백경희_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khpaek95@korea.ac.kr

졸업과 입학의 계절이다. 한쪽에서는 힘겨운 실험실 생활을 이겨냈다는 뿌듯함과 불확실한 미래를 앞둔 불안감이 뒤섞인 석·박사들이 실험실을 나서고 있고,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실험실을 선택한 학부 졸업생들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필자도 어찌하다보니 이런 과정을 다 거쳤고, 이제는 후배들을 동료로 맞이하고 제자를 배출해내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우선은 만사를 제쳐놓고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진부한 말 같지만 일단 선택을 한 후에는 최선을 다 하고 나서야 진짜 그것이 자기의 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쌓는 노력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일까? 시간이 갈수록 과학자가 더 이상 실험실에만 박혀있는 다소 사회성이 떨어지는 존재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즉, 과학자는 결과물로서만 살아남는다.

다소 엉뚱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특성을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필자는 '알루미늄 냄비' 라고 표현하고 싶다. 알루미늄 냄비의 가장 큰 장점은 말할 것도 없이 빨리 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가장 큰 단점은 빨리 식어버린다는 것이다. 과학도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알루미늄 냄비처럼 과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 획일적으로 SCI 논문을 강조하더니 이제 SCI 자체는 시들해지고 인용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하며, 더 나아가 모든 과학자들이 산업화에 매진하도록 요구받는다. 후배와 제자들에게는 튼튼한 기초학문의 토양 위에 응용학문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전개될 수 있기를 꿈꾸어 본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당당히 주장해서 과학자 스스로 과학정책을 바꾸는 것이 과학자의 백일몽이 아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여성과학자로 살아갈 후배에게

요즘은 언론마다 '여보라', '여풍당당' 등의 단어로 각종 분야에 눈부시게 진출하고 있는 여성과위를 화두로 삼고 있다. 반면 형편없이 낮아진 출산율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 하지만 아이의 양육은 여성만이 담당하고, 더 나아가 한 가족만이 감당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근본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빠진 몇 가지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갈수록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실험을 하는 여성과학자의 길은 어떤가? 출산을 하고 육아를 담당하며 '성공한 여성과학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는 상상이 가고도 남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완벽한 엄마 여성과학자'의 환상에 온 몸을 맡긴 것은 아닐까? '완벽한 엄마 여성과학자'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인정해 주자. 모든 워킹맘에게는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란다.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와 관련된 것들을 자기 손으로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리 다재다능한 사람이라도 육아와 가사, 직장일 모두를 동시에 잘 해낼 수는 없다. 실험실 생활을 하는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미안해하거나, 일 때문에 아이에게 다소 소홀했던 일을 마음에 담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자. 엄마가 아이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이는 오히려 더욱 나약해진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점은 인정하고 부족한 점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 어떤 경우에도 엄마가 실험실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과학자의 길이 힘들고 지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무척 힘들고 속상할 때가 많지만 아이는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젊은 여성과학자들이여! 처음부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가족들을 당당하게 대하자. 나아가 당당하게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여성과학자를 꿈꾸어보자.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자신이 속한 직장마다 완벽한 육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유토피아를 꿈꾸어보자. 아니 더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의 일부분만이라도 이 공계로 진학하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만 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여성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 보자. 있을 때 잘 하라지 않던가? 이것저것 안 될 때는 과학에만 매진하고도 거리낌 없는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꿈꾸어보자.

먼 훗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설 즈음에

‘완벽한 지도자’ 역시 현대에는 허상에 불과하다. 어느 분야의 리더든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선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내색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는 ‘집단 지성’의 시대다. 지식과 정보를 누구나 공유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완벽한 지도자’의 허상을 깨야 한다. 데보라 안코나를 비롯한 MIT경영대학원 교수팀은 지난 6년간 수백명의 임원들을 인터뷰하여 각각의 리더들이 지닌 능력을 4가지(맥락 파악, 관계 맺기, 비전 제시, 방법 도출)로 분류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월호를 통해 소개했다. 어떤 리더도 네 가지를 모두 갖출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리더 자신이 완벽한 리더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인재를 충원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당장 실험실의 현실은 어떤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실험실에서 대학원생들은 모셔 와야 될 존재가 되었다.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을 데려오는 것이 앞으로의 대세이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실험을 해야 하는 과학쪽은 이미 어쩔 수 없이 부익부 빈익빈 형태로 가고 있지만 현재의 평가시스템

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현재의 체제 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미래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연구를 해야만 과학 선진국의 대열 합류가 가능하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에 유학간 중국 유학생들은 어떻게든 그 나라에 남으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중국 본토로 속속 고급인력들이 되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 우리도 정책 결정 자리에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을 날을 꿈 꿔 본다.

과학의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블루오션’의 대책도 있다. ‘블루오션’의 전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는 훌륭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루오션’의 전략이 안 먹히는 분야도 있고, 이런 전략만으로는 어쩌면 과학 선진 대열에 합류하기 힘들고 마냥 이류로 남아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한국적인 실험실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어떤 형태일까? 물론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집단지도체제’를 구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면서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환상의 드림팀은 그야말로 현실적으로는 환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물론 최고의 기량을 가진 개인 주자들을 모아 놓는다고 해서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육은 최고의 개인 주자를 키우는 데만 익숙해 있고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학 분야에서도 모두 ‘1인 지도자’의 실험실 형태에만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현명한 후배들이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생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냈다.